

清華簡 <耆夜> 주해

이연주,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耆夜>의 내용과 발견 의미
3. 清華簡 <耆夜> 역주
4. 맺음말

1. 머리말

<耆夜>는 2010년 12월 발표된 清華簡¹⁾ 1차 연구성과에 포함된 9편의 논문 중 1편으로 周武王 8년에 耆를 정벌한 후 개최한 飲至禮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耆夜>의 ‘夜’는 ‘豫’ 또는 ‘懌’로 통가되었으며, ‘즐기다(樂)’의 뜻이다. <耆夜>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은 耆²⁾를 정벌하여 승리를 거두고 전승의 공을 치하하고 즐기는 宴會를 거행한다는 것이다. 본 문헌에는 耆 정벌 후 君臣이 文王 太室에 모여 飲至典禮를 거행하고 飲酒와 작시를 하며 승리를 경축하는 광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周나라 초기의 飲至禮를 이해하는데 매

* 이연주: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張崇禮: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 1) 清華簡(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尚書》및 유사류의 문헌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 외(2014)에서 개괄하였다.
- 2) 殷 말기에 존재했던 제후국으로 오늘날 山西 長治 西南쪽에 위치하고 있다. 출토된 죽간에는 ‘𠄎’로 기록되어 있다.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2010:149)에 따르면 𠄎는 古書에서 ‘黎’ 또는 ‘耆’로 쓰였다. ‘𠄎’, ‘阝’와도 같은 字로 인식된다.(陳致, 2010: 주 8) 《尚書·西伯戡黎》에서는 ‘黎’로 기록하고 있다.

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또한 <耆夜>의 발견은 당시(戰國시대 이전)의 시 5편이 새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이 중 周公이 읊은 3편의 시 중 한 편인 <蟋蟀>시는《詩經·唐風·蟋蟀》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耆夜>의 출토는《尚書·西伯戡黎》를 두고 黎를 정벌한 것이 文王인지 아니면 武王인지와 관련해 唐宋代 이후 있어온 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耆夜>의 내용과 발견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주해한다.

2. <耆夜>의 내용과 발견 의미

《史記·殷本紀》와 <周本紀>, <宋微子世家>를 보면 周 文王 西伯 昌의 耆(黎) 정벌이 언급되어 있다.³⁾ 이는 모두《尚書·西伯戡黎》와 스토리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한 바⁴⁾ 아마도《史記》저술시《尚書·西伯戡黎》가 참고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周의 耆(黎) 정벌은 漢代 이후 전통적으로 文王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唐宋代에 들어《尚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文王이 아닌 武王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 그러나《史記》 등 문헌의 기술을 부정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3) 《史記·殷本紀》와 <宋微子世家>에는 각기 '饑'와 '卍儿'로 기록되어 있다. 西伯 昌이 耆(黎)를 정벌하자 이를 두려워한 殷의 신하 祖伊가 紂왕에게 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西伯은 서방제후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직위로, 《史記·殷本紀》, <周本紀>, <宋微子世家>, <劉敬叔孫通列傳>, <尚書大傳>, <周書·無逸>, 《楚辭·天問》 등 문헌에서 文王이 西伯 이 되었음을 밝히거나 文王을 西伯 또는 西伯 昌으로 칭했다.

4) <西伯戡黎>에서 戡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며, 黎는 耆國으로 알려지고 있다.(주2.) 殷의 紂임금 때 西伯이 黎를 쳐 이기자 殷의 신하 祖伊가 두려워 紂왕에게 고하고 殷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관련해 李學勤(2009)은 “耆는 商의 수도가 있던 安陽縣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던 제후국으로 그곳까지 文王이 출병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唐宋 이래 많은 학자들이《尚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武王이 아닐까 의심을 품었으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唐代 孔穎達이《尚書正義》에서 '文王戡黎'에 의심을 품었으며(沈建華, 2010), 이후 宋代 들어 呂祖謙이《增修東萊書說》

만큼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⁶⁾ 이후의 《尚書·西伯戡黎》에 대한 해석이나 周나라 성립기의 역사기록에서 줄곧 文王이 耆(黎)를 정벌한 것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清華簡<耆夜>의 발견으로 “武王 8년에 耆나라를 정벌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자 《尚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武王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고 관련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尚書·西伯戡黎》가 작성된 시기에 武王도 西伯이라고 칭했음이 주장되어야 하고, 추가의 증거나 역사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耆夜>의 내용을 보면, “武王 8년에 耆나라를 정벌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였다.”라고 해 武王 8년에 耆 정벌 후 君臣이 文王 太室에 모여 飲至禮를 거행하였음이 언급된 후 참가자와 연회에서의 신분과 역할이 소개된다. 이어 飲酒와 作詩를 하며 승리를 경축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다. 《左傳》桓公 2년에 보면, “凡公行, 告於宗廟; 反行, 飲至, 舍爵, 策勳焉, 禮也”(무릇 임금이나 제후가 출행할 때는 종묘에 고하고, 돌아와서는 종묘에서 飲至禮를 거행해 술을 차려놓고 공훈을 기록하는 것이 禮다)라는 기록이 있다. 飲至禮란 이처럼 전쟁이 끝난 후 개선하여 돌아와 종묘에 제를 올려 고하고 군신이 함께 모여 음주를 하며 공훈을 기록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⁷⁾ 이러한 飲至는 통상 왕실의 사당에서 이루어졌으며, <耆夜>의 경우도 文王 太室에서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飲至의식에

卷十三에서, 項安世와 元代的 吳澄이 각기 《項氏家說》卷三과 《書纂言》卷三에서 《尚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文王이 아닌 武王이라고 주장했다.(王鵬程, 2009) 한편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함에 있어 유교적 '理'(신분제 사회에서의 정명론과 文王에 대한 이상화)에 바탕해 經을 해석한 측면이 있다.

- 6) 관련해 朱熹(《朱子晦庵集》卷五十一)는 ‘文王戡黎’는 의심스럽지만 ‘武王戡黎’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王鵬程, 2009)
- 7) 楊伯峻은 《春秋左傳注》에서 “師返, 於宗廟祭告後, 合群臣飲酒, 謂之飲至.(군사가 돌아오면 종묘에서 제를 올려 고한 후에 여러 신하가 모여 음주를 하였는데, 이를 飲至라고 한다.)”고 했다.(李學勤, 2009) 이러한 飲至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이나 사냥(종종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후 돌아와서도 이루어졌다.

대한 초기 기록은 周初 청동명문인 冉方鼎 (2739, 周公東方征鼎)⁸⁾이 발견됨으로써 周왕조 성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左傳》隱公5년, 桓公16년, 僖公28년, 襄公3년 등에 飲至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는바 周代에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⁹⁾

<蒼夜>에 묘사된 飲至禮 참가자와 연회에서의 신분과 역할을 보면, 본 행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7인으로 이 가운데 武王, 周公, 邵公, 畢公은 형제지간이고, 辛公은 商의 遺臣, 作冊逸은 문건 작성을 맡았던 武王의 대신이며, 강태공으로 잘 알려진 呂尙父는 군사를 담당하던 대신이다. 이들의 연회에서의 신분과 역할은 畢公 高가 연회의 주빈, 邵公 奭이 賓客이 禮를 행하도록 도와주는 자인 介(夾), 周公 叔旦이 주관자, 辛公 甲이 주관자를 돕는 僕(立), 作策逸이 여러 빈객의 長, 그리고 呂尙父가 음주가 예법에 맞는지를 감찰하는 司政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 후에 飲酒作歌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술을 권하는 모습과 이 자리에서 읊은 武王과 周公의 시 다섯 수가 소개된다. 첫 번째 시는 武王이 지은 <樂樂旨酒>로 국가가 화평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직한 형제들이 국가의 중책을 기꺼이 짊어짐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시는 武王의 <輶乘>으로 周나라의 병사들을 칭송하는 것이 내용이다. 세 번째 시는 周公이 지은 <焚燹>인데, 禍를 정벌하는 戰爭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찬미하는 시이며, 네 번째 시는 周公의 <明明上帝>로, 上帝의 덕을 찬미하고 이변

8) 周公이 東夷를 정벌한 후 周왕실 사당에서 행한 飲至禮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9) 桓公16년에는 鄭나라 토벌 후 飲至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僖公28년에는 獻俘(포로 헌상), 策勳(공훈 책정)을 포함한 飲至의식을 행한 기록이 있다. (“秋七月丙申, 振旅, 愷以入於晉. 獻俘授馘, 飲至大賞. 가을 7월 丙申일에 군대를 정렬해 크게 군악을 울리며 쫓. 나라로 개선해 들어와 포로며 전리품을 사당에 바치고 배어온 적병의 귀의 수를 세며 사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크게 상을 내렸다.”) 隱公5년 경우 사냥이 포함된 정기 군사훈련 후 행해진 飲至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襄公3년에는 楚의 슈尹이었던 子重이 吳나라와의 전투 후 돌아와 飲至를 행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顏偉明, 陳民鎮(2011)에 따르면, 문헌 기록들을 종합할 때 ‘飲至’라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 시간적으로 개선한 후에 행해지며, 둘째 장소가 宗廟이고, 셋째 ‘飲至’는 功臣을 위로하고 아울러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 전승을 알린다는 점, 넷째 넓은 의미의 ‘飲至’의식은 獻俘(포로 헌상), 飲酒, 賦詩(작시), 策勳(공훈 기록) 등을 포함하며, 다섯째 협의의 ‘飲至’는 ‘舍餼(술을 차려놓다), 즉 飲酒, 酬酢賦詩(술잔을 주고받으며 시를 짓다)를 의미한다.

전쟁에서 승리할 있도록 해준데 대한 감사를 나타내며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마지막 시는 周公이 지은 <蟋蟀>이라는 詩인데, 이 경축의 자리에서 周公은 “즐기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계의 말로 居安思危의 憂患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耆夜>의 내용은 周代의 飲至禮와 관련해 《左傳》이나 청동명문에 기술된 내용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행사에서의 참가자의 신분과 역할, 음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飲至 행사와 음주례를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¹⁰⁾ 한편 <蟋蟀>의 경우 《詩經·唐風·蟋蟀》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耆夜>에 수록된 <蟋蟀>과 《詩經·唐風·蟋蟀》이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각 시가 쓰여진 시기, 만일 같은 시라면 이들의 선후관계 내지 流傳問題는 어떻게 되는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李學勤(2011)과 陳致(2010) 등이 있다.

10) 관련해 李家浩(2013)는 “주지하다시피 《儀禮》 가운데 ‘饗禮’와 관련된 문자는 일찍이 망실되어 후세 학자들이 이를 수집, 연구코자 했으나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어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耆夜>에 기록된 飲至禮는 先秦 예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耆夜>에서의 飲至禮의 飲酒過程에 대한 기술은 《儀禮》 중의 ‘饗禮’와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로, 飲酒禮의 모습이 묘사된 고대 시가로는 《詩經·賓之初筵》이 있고, 飲酒禮의 예와 절차에 관한 문헌으로는 《儀禮》, 《禮記·鄉飲酒義》가 있다. 周代의 飲至禮는 후대로 가면서 시대변화와 상황을 반영해 鄉飲酒禮로 정착 및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3. 清華簡 <耆夜> 역주¹¹⁾

【간문1】

武王八年，征伐郟(耆) [1]，大戣(戣) [2]之。還，乃飲至[3]于文大(太)室[4]。繹(畢)公[5]高爲客[6]，邵(召)公保罍(奭) [7]爲夾(介) [8]，周公弔(叔)旦[9]爲主(主)，辛公諫(甲) [10]爲立(僕) [11]，作策(冊)逸[12]爲東尚(上)之客[13]，邵(呂)上(尚)甫(父) [14]命(望)爲司政[15]，監飲酒。

【주석】

[1]整理組(2010): 郟를 옛날에는 ‘黎’ 혹은 ‘耆’로 썼다.

[2]整理組(2010): 戣는 후세에 ‘戣’으로 썼으며, 《說文》에서는 《商書》를 인용하여 ‘戣’으로 썼다. 《說文》에 “戣은 죽이다(殺)의 뜻”이라고 했다.

[3]李學勤(2009): ‘飲至’ 의식은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左傳》桓公二年에 “凡公行，告於宗廟；反行，飲至，舍爵，策勳焉，禮也。(무릇 임금이나 제후가 출행할 때는 종묘에 고하고, 돌아와서는 종묘에서 飲至禮를 거행해 술을 차려놓고 공훈을 기록하는 것이 예다)”라고 했다.

[4]整理組(2010): 文太室은 文王에게 제사를 올리던 太室을 말한다.

[5] 畢公은 文王의 아들로, 후에 魏나라 왕실의 선조가 되었다.

[6]整理組(2010): 畢公 高가 본 飲至禮의 主賓이었으며, 아마도 耆나라 정

11) <耆夜>가 발표된 후 아직까지 개별 글자의 해독이나 풀이에 여러 이견이 있고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의 주석은 張崇禮의 <제96차 중국학연구회 국제학술대회> (2013.11.1~2) 발표문과 2014a, 2014b, 2014c에 입각하였으며,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組라 함)와 몇몇 학자들의 견해 중 신빙성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整理組의 견해와 관련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신빙성이 높지 않은 해석은 소개하지 않았다.


벌에서 主將으로 임명되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7]整理組(2010): 邵保罫은 召公 奭을 말하는데, 罫은 奭과 통하며 保는 官名이다.

[8]整理組(2010): 夾은 介¹²⁾로 풀이되며, 主賓이 禮를 행하도록 도와주는 자를 말한다.

[9]整理組(2010): 周公 叔은 周公 旦을 말하며, 叔은 형제간의 서열을 나타낸다. 《史記·魯周公世家》에 “周公 旦은 周 武王의 아우”라고 했다.

[10]李學勤(2009): 辛公은 《左傳》襄公四年을 보면 辛甲이라고 했으며, 周大史를 말한다. 《韓非子·說林上》에서는 辛公諒甲이라고 했는데, “諒”과 “甲” 중 아마도 하나는 이름(名)이고, 하나는 자(字)일 것이다.

復旦讀書會(2011): ‘諒’은 원래 簡文에는 으로 되어있는데, 整理組가 글자의 우측 부분을 ‘臣’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주장은 불확실하다.

[11]李家浩(2013): ‘立’은 辛公이 이 飲至 의식에서 맡은 역할을 말하는데, 아마도 후대의 <鄉飲酒禮>에서 주관자(主人)를 도와 예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僕’¹³⁾의 역할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12]整理組(2010): 作策逸는 곧 作冊逸과 같다.

李學勤: 作冊逸은 《尚書·洛誥》에 나오는데, 다른 古書에서는 史逸(佚) 또는 尹逸이라고 했다.

作冊은 官名으로, 천자를 위해 문건을 작성하는 사람을 말하며, 逸은 人名이다. 作冊이 하는 일이 史官에 가깝기 때문에 作冊逸을 史逸이라고도 했다.

[13]李家浩(2013): ‘東尙(上)之客’은 본 飲至 의식에서 作冊逸의 자리와 그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東尙’은 아마도 禮書에서 말하는 앉는

12) 介에 대해 《禮記·鄉飲酒義》에 “主人者尊賓，故坐賓於西北，而坐介於西南以輔賓。(주인은 賓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賓을 서북에 앉게 하고, 介를 서남에 앉게 해서, 賓을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賓은 主賓을 말한다.

13) 僕에 대해 《禮記·鄉飲酒義》에 “主人者，接人以德厚者也，故坐於東南。而坐僕於東北，以輔主人也。(주인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덕으로 후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동남에 앉고, 僕을 동북에 앉혀 주인을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자리의 ‘東上’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客’은 후대의 <鄉飲酒禮>에서 말하는 三賓, 즉 여러 빈객의 長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4]整理組(2010): 呂尙父는 ‘呂尙’ 또는 ‘師尙父’라고 칭했는데, 《史記·齊太公世家》에 “본래 姓은 姜氏이지만, 그 封地를 따라 呂尙이라고도 불렀다”고 했다.

李家浩(2013): ‘邵上甫命’은 ‘呂尙父望’으로 통가되었다. 俞樾은 “太公의 名은 望이며, 字는 尙父”라고 했다.

呂尙父는 강태공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으로 원래 성씨는 姜이고, 呂는 그의 封地이며, 尙父는 그의 字, 望은 그의 名이다.

[15]司政¹⁴⁾은 飲酒가 예법에 맞는지 감찰하는 사람이다. 《國語·晉語一》에 晉 獻公이 “飲大夫酒, 令司正實爵(大夫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司正에게 술을 따르라고 명하였다)”라고 했는데, 韋昭의 注에 “司正은 賓主의 禮를 바르게 감찰하는 사람이다. 그 職은 항상 있는 官이 아니라 음주 시에만 둔다”고 했다.

【번역】

周 武王 八年에 耡나라를 정벌하여 大勝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였다. 畢公 高를 主賓으로 삼고, 邵公 奭을 介로 삼으며, 周公 叔旦이 주관자(主人)가 되고, 辛公 甲이 僕이 되어 주관자를 돕도록 하였다. 作策逸는 여러 빈객들 가운데 長이 되었으며, 呂尙父는 司政이 되어 음주가 예법에 맞는지를 감찰하였다.

【간문2】

王夜 (釋) 筮 (爵) [16] 鬯 (酬) 繹 (畢) 公, 作歌一終[17], 曰《樂樂旨

14) 司正에 관해서 《禮記·鄉飲酒義》에 “一人揚觶, 乃立司正焉, 知其能和樂而不流也。(주인을 돕는 사람이 잔을 들고, 禮를 알 만한 사람을 택하여 司正으로 삼는다. 그가 잘 화락하여 절도를 잃는 이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詩經·賓之初筵》에는 “凡此飲酒, 或醉或否. 既立之監, 或佐之史.(모두들 이렇게 술 마셔도,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않아. 그래서 감시관을 세우고, 기록관이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酒》：“樂樂旨酒，宴以二公[18]。紆^巨[19]兄弟，庶民和同[20]。方^臧（壯）[21]方武，穆穆克邦[22]。嘉^篚（爵）速^飲（飲），後^篚（爵）乃從。”

【주석】

[16]張崇禮(2014b): ‘夜’는 ‘釋’으로 통가되어 설치하다, 진설하다의 뜻이다.

[17]李學勤(2011): ‘作歌一終’이라는 말은 《呂氏春秋·音初》에 보이는데, “有^{娥氏}에게 재주가 출중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燕燕往飛(제비들이 집을 찾아 돌아왔네)>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有^{娥氏}有二^佚女, ……二女作歌一終, 曰《燕燕往飛》)”고 했다. 옛날에 詩는 모두 음악으로 연주되었는데, 한 번 연주하는 것을 一終이라고 했다. 따라서 ‘作歌一終’은 시 한 수를 짓는 의미이다.

[18]李學勤(2011): ‘宴以二公’은 二公을 위해 연회를 베풀다의 의미이며, 二公은 畢公과 周公을 말한다.

[19]張崇禮(2014a): ‘巨’는 ‘昵’, ‘昵’로 통가되었다. ‘紆’은 ‘任’으로 통가되었다. 《詩經·燕燕》에 “仲氏任^只”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의 箋에서 “任者, 以恩相親信也.(任이라는 것은 은혜로써 혈육을 믿고 가깝게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任’과 ‘昵’는 의미가 비슷하여, ‘任昵兄弟’는 즉 형제를 믿고 가깝게 신임하는 것이다.

[20]伏俊璉, 冷江山(2011): 和同은 和睦하여 마음이 같음을 말한다. 《管子·立政》에 “大臣이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21]整理組(2010): 臧은 ‘壯’으로 통가되었다. 方壯方武는 병렬구조로 壯과 武의 뜻은 서로 비슷하며 흔히 연이어 쓰이는데, 이는 늙름하고 위풍당당하여 패기가 넘치는 모습을 말한다.

[22]伏俊璉, 冷江山(2011): 穆穆는 단정하고 공손하여 자태나 용모, 또는 언행이 부드럽고 우아함을 말한다. 《詩經·大雅·文王》에 “공손하고 단정한 文王이시어! 밝고도 기품 있어 공경스럽도다(穆穆文王, 於緝熙敬止)”라고 했

다.

伏俊璉, 冷江山(2011): 克邦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을 능히 양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說文》에 “克은 어깨에 짊어지다(肩)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武王이 술잔을 들어 畢公에게 술을 권하며, <樂樂旨酒>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즐겁고 기쁘도다! 좋은 술로
周公과 畢公을 위한 연회를 베풀노라.
형제들은 믿음직스럽고,
만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구나.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형제들,
공손하고 신중하게 나라의 중책을 마다않고 짊어지네.
근사한 술잔에 채워진 이 술을 어서 비우시게,
다음 잔이 기다리고 있다네.

【간문3】

王夜(釋) 筮(爵) 鬯(酬) 周公, 作詞(歌) 一久(終), 曰《**攴**(輶)
[23] **宛**(乘)》: “**攴**(輶) **宛**(乘) 既玳(飭), 人備(服) 余不(被)
[24] 鞅(胄)。**戲**[25] 士奮刃[26], 毆(繫)[27] 民之秀。方**戕**(壯) 方武,
克**熒**(燮)[28] **棧**(仇) **戩**(讎)[29]。嘉爵速飲, 後爵乃復。”


【주석】

[23] 整理組(2010): **攴**은 ‘輶’로 통가되었으며, 輶乘은 곧 輶車다. 《詩·駟驥》에 “輶車鸞鑣, 載獫狝驕(방울 소리 울리는 날렵한 輶車, 그 차에 탄 사냥개

들 기세등등하네)”라고 했는데, 毛傳에서 “輶는 가볍다(輕)의 뜻”이라고 했다. 鄭玄의 箋에서 “輕車는 (사냥감) 물이 마차(驅逆之車也)”라고 했다. 玠는 ‘筋’으로 통가되어, ‘갈 정돈하다(整治)’의 뜻이다.

[24]張崇禮(2014a): ‘不’은 때로 ‘被’로 통가되기도 한다. 《文選·曹植<名都賦>》에 “被服麗且鮮(입은 옷은 아름답고 빛이 나네)”라고 했는데, 呂向의 注에 “被는 옷(衣)”이라고 했다. 《左傳·襄公三年》에 “被練三千以侵吳(갑옷을 잘 갖춰 입은 병사 3천 명이 뭇를 공략했다)”라고 했는데, 孔穎達의 疏에 “하나는 덮어 입는 의복의 명칭”이라고 했다. ‘人備(服)余被冑’는 의미가 ‘人服余甲冑(모든 병사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다)’와 가깝다.

[25]整理組(2010): 𠄎는 즉 《說文》의 “𠄎”字이며, 문두 감탄사로 쓰였다.

[26]復旦讀書會(2011): ‘刃’은 원래 簡文에 로 되어있다. 整理組는 ‘甲’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글자를 甲冑의 ‘甲’으로 본 것 같다. 이 글자를 ‘甲’으로 풀이한 것은 믿을만하지 못하며, 마땅히 글자 그대로 ‘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整理組(2010): 𠄎는 ‘繫’와 통하며, 문두조사로 ‘惟(維)’와 같다.

[28]整理組(2010): 𠄎는 ‘變’, 또는 ‘變’의 省文으로 볼 수 있으며, 용법은 《詩·大明》의 “變伐大商(큰 商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시었다)”과 曾伯 𠄎(《集成》4631~4632)의 “印變鬻湯(鬻과 湯을 정벌하다)”과 유사하다.

[29]整理組(2010): 𠄎 𠄎는 원수(仇讎)로, 《左傳》成公十三年에 “君之仇讎, 而我之昏姻也.(귀국과는 원수이지만 우리와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원수의 의미다.

【번역】

www.kci.go.kr

武王이 술잔을 들어 周公에게 술을 권하며 <輶乘>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

다.

이미 전차는 모두 정돈되었고,
 병사들은 모두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네.
 무기 든 병사들 사기충천하여 적과 맞붙어 싸우니,
 백성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이라네.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능히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네.
 근사한 술잔에 채워진 이 술을 어서 비우시게,
 다음 잔이 기다리고 다시 돌아온다네.

【간문4】

周公夜(釋) 爵(酬) 繹(畢) 公, 作(訶) (歌) 一(久) (終)。曰《鼂鼂(熒熒) [30]》: “鼂鼂(熒熒) 戎備(服), 臧(壯) 武(忪忪) (赳赳) [31]。窳(宓) 情(靖) 愬(謀) 猷[32], 褻(裕) 惠(德) 乃救(求)。王有脂(旨) 酉(酒), 我憂以(颯) (拂) [33]。既醉又(盞) (侑) [34], 明日勿(稻) (叨)。[35]”

【주석】

[30]張崇禮(2014a): ‘鼂鼂’은 ‘熒熒’으로 통가되었다. ‘熒熒’은 본래 번쩍거리며 빛나는 모양을 말한다. “鼂鼂戎備(服)”은 밝게 빛나는 전투복(戎服)을 의미한다.

[31]整理組(2010): 忪忪은 ‘赳赳’로 통가되었다. 《詩·兔置》에 “赳赳武夫(씩씩하고 늠름한 무사여)”라고 했다.

[32]張崇禮(2014a): ‘窳’은 ‘宓’字이며, 글자에 必이 들어든 하나이든 같은 글자다. 《說文》에 “宓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라고 했다. 그들을 안정되게 하다는 곧 鎮撫다. ‘情’은 ‘靖’으로 통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廣雅·釋詁一》

에 “靖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라고 했다. 《左傳·昭公十三年》에 “諸侯靖兵, 好以爲事(제후들이 전쟁을 쉬어 병사를 안정시키는 것은 일을 잘 하려는 것인데)”라고 했는데, 杜預의 注에 “靖은 안정시키다(息)의 뜻”이라고 했다. ‘謀猷’는 계략(計謀)이다. “宓靖謀猷”는 곧 각종 계략을 종식시키고 각종 모반을 불식시켰다는 뜻이다. 求是 획득하다, 얻다의 뜻이다.

[33]張崇禮(2014c): ‘颯’는 風과 孚聲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吹拂의 ‘拂’로 보아야 한다. ‘拂’로 통가되어 제거하다, 배제하라는 뜻이다.

[34]整理組(2010): 蠶은 곧 《說文》의 ‘蝓’字로 ‘侑’로 통가되어, 음주를 권하다(勸飲)의 뜻이다.

復旦讀書會(2011): ‘蠶’의 ‘友’는 고문자에서 흔히 ‘畚’로 쓰는데, 이 글자는 曾仲大父 蠶簋(《集成》4203-4204)에 나온 ‘畚(蠶)’字임이 분명하다. 簡文에서 ‘侑’로 통가된 것으로 본 整理組의 견해는 타당하다.

[35]劉云: “明日勿稻”의 ‘稻’는 ‘叨’로 통가되었다. ‘叨’는 ‘饗’이며, 탐하다(貪)의 뜻이다. 《說文·食部》에 “饗는 탐하다(貪)의 뜻”이라고 했다. “明日勿叨”는 이후에 술 마시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오늘은 이미 많이 마셨으니 그만 되었고, 이후에는 너무 과하게 많이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번역】

周公이 술잔을 들어 畢公에게 술을 권하며 <熒熒>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갑옷은 번쩍번쩍 빛나고,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하네.
 계략과 모반을 일삼던 彔나라를 평정하여,
 안정과 평화를 얻었네.
 왕께는 좋은 술이 있고,



나에게는 근심이 사라져버렸네.
이미 취했는데 다시 또 권하고 권하지만,
내일은 더 이상 술을 탐하면 안 된다네.

【간문5】

周公或夜(釋)爵鬯(酬)王, 作祝誦一爻(終)。曰《明明上帝》: “明明上帝, 臨下之光。不(丕)顯來各(格), 兪(愔—款)厥醴(禮)明(盟) [36]。於……月有盛(成)斂(轍), 歲有臯(臯)行[37]。作茲祝誦, 萬壽無疆。”

【주석】

[36]整理組(2010): 兪는 ‘款’으로 통가되었다. 醴明은 즉 禮盟이다. 鄭太子與兵壺(《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八七八)에서 ‘禮鬯’으로 썼다. 넓은 의미의 祭祀를 가리킨다.

[37]郭永秉(2011): 이 문장은 “月有成斂, 歲有臯行”으로 볼 수 있으며, 달은 이미 정해진 자신만의 궤도가 있고, 목성도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의미이다.

【번역】

周公이 또 술잔을 들어 武王에게 술을 권하며 <明明上帝>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밝음으로 강림하시는 上帝시여,
인간 세상에 밝은 빛을 내리비추시여,
위대하고 광명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네.
제사에 바친 제물을 향유하시고,
……, (於……)

달은 자신만의 궤적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목성도 변치 않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네.
 이 축송의 시를 지어,
 우리 군주 만수무강하시기를 빈다네.

【간문6】

周公秉爵未飲，**蚺**（蟋）**蜎**（蟀）**趨**（趨）[38]**陞**（陞）[39]于尚（堂），[周]公作詞（歌）一久（終）。曰《**蚺**（蟋）**蜎**（蟀）》：

“**蚺**（蟋）**蜎**（蟀）在尚（堂），**迨**（役）車[40]其行。今夫君子，不[41]熹（喜）不藥（樂）。夫日□□，□□□忘。母（毋）已（已）大藥（樂），則久（終）以康[42]。康藥（樂）而母（毋）忘（荒）[43]，是[44]惟良士之**迨**（彭彭）[45]。

蚺（蟋）**蜎**（蟀）才（在）笱（席），歲番（聿）[46]員（云）茗（暮）[47]。今夫君子，不熹（喜）不藥（樂）。日月其**覲**（邁）[48]，從朝迅（及）夕。母（毋）已（已）大康，則久（終）以**夔**（祚）[49]。康藥（樂）而母（毋）[忘（荒）]，是佳（惟）良士之思思（懼懼）[50]。

蚺（蟋）**蜎**（蟀）在舒（序）[51]，歲番（聿）員（云）□。□□□□，□□□□。□□□□，[從**各**（冬）]迨（及）夏。母（毋）已（已）大康，則久（終）以思[52]。康藥（樂）而母（毋）忘（荒），是惟良士之思思（懼懼）。”

【주석】

[38]復旦讀書會(2011): **蚺**은 趨, 또는 躍으로 풀이되며, 《周易·乾》에 “或躍在淵(장차 크게 뛰려 하나 아직은 못 속에 있음)”이라는 구절의 孔穎達 疏에서 “跳은 뛰다(躍)의 뜻”이라고 했다. ‘趨’는 작은 벌레(小蟲)가 뛰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면 <召南·草蟲>과 <小雅·出車>의 “趨趨阜螽(팔짝팔짝 뛰는 메뚜기)”라는 구절에서 ‘趨’는 귀뚜라미(蟋蟀)가 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9]陳志向: 簡10 “躡^陞于堂”의 陞字는 整理組가 釋文에서 ‘降’으로 풀이하였으며, 注24(整理組 注를 말함)에서 “陞은 ‘降’의 異體이지만 ‘陞’字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廣瀨薰雄이 알려준 바로는 이 글자는 ‘陞’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整理組가 注에서 제시한 두 번째 의견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升堂’이라는 말은 典籍에 자주 보이는 말이다. 문맥의 의미로 보건대 飲酒가 堂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집(堂)에 들어와 周公이 이를 보고 시를 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包山簡의 “陞/阨門又敗”중 ‘陞/阨’字의 寫法을 참고할 수 있다.

[40]整理組(2010): 役車는 일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수레를 말한다.

[41]曹建國(2011): 不은 ‘丕’의 통가다.

[42]整理組(2010): 康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다.

[43]整理組(2010): 忘은 ‘荒’과 통하며 게으르고 방탕하다(怠荒)의 뜻이다.

[44]整理組(2010): 是는 ‘寔’ 또는 ‘實’로 쓰였다.

[45]張崇禮(2014a): ‘^邶邶’은 ‘^彭彭’으로 통가되었으며, 매우 무성한 모습을 말한다.

[46]整理組(2010): 畷은 ‘聿’과 통하며 어조사이다. 員은 ‘云’과 통하며, ‘其’字와 用法이 유사하고 문장의 중간에 쓰는 조사(句中助詞)다.

[47]整理組(2010): 暮은 ‘莫’과 통한다.

[48]整理組(2010): ‘日月其^機’는 《詩·蟋蟀》의 “日月其邁(세월은 가버린 다)”와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朱熹《詩集傳》에 “逝, 邁은 모두 가다(去)의 뜻”이라고 했다.

[49]整理組(2010): 禔는 ‘祥’로 통가되었으며, 복(福)의 뜻이다.

[50]整理組(2010): 患는 ‘懼’의 古文이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다(憂懼)의 뜻이다.

[51]整理組(2010): 舒는 ‘舍’, 또는 ‘序’로 통가되었다. 飲酒가 堂上에서 행해

졌기 때문에 序가 더 맞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序는 堂의 동쪽과 서쪽 벽을 말한다.

[52]뜻은 ‘衢’, ‘豫’ 또는 ‘祐’로 통가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번역】

周公이 술잔을 들어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귀뚜라미가 堂에 들었다. 周公이 이를 보고 <蟋蟀>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귀뚜라미가 집(堂)에 들어,
일하러 가는 수레도 갈 길을 떠나고,
지금 군자(武王과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 (夫 日 □ □)

…… (□ □ □ 忘)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 중국에 康樂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의 모습일지니.

귀뚜라미가 자리(席)에 들어,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구나.
지금 군자(武王과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세월은 가버린다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 중국에 복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가 두려워할 바이지.

귀뚜라미가 서(序)에 들어,

…… (歲 聿 □ □)

…… (□ □ □ □)

…… (□ □ □ □)

…… (□ □ □ □)

[겨울에서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좇지 말라.

그래야 중국에 복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가 두려워할 바이지.

4. 맺음말

<耆夜>의 발견은 초기의 飲至禮를 이해하고 기존의 관련 전래문헌을 보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특히 飲至禮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耆夜>의 발견은 戰國시대 이전의 시 5편이 새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 중 周公이 읊은 3편의 시 중 한 편인 <蟋蟀>의 경우 《詩經·唐風·蟋蟀》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周왕조 성립시기의 耆정벌과 관련해 이를 文王시기가 아닌 武王 8년에 행해졌다고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耆夜>가 《書》, 《禮》, 《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귀중한 사료가 되는 동시에 연구 과제를 던지고 있는바, 국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헌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 분야가 해당 연구자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깊이 들어

가는 것은 피했으며, 개괄적으로 <耆夜>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주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耆夜>의 세부 내용이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와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 中西書局, 2010
- 曹建國: 論清華簡中的《蟋蟀》, 江漢考古, 2011年第2期.
- 陳民鎮、江林昌: “西伯戡黎”新證——從清華簡《耆夜》看周人伐黎的史事, 東嶽論叢, 2011年第10期.
- 陳偉: 也說清華竹書《耆夜》中的“夜爵”, 簡帛網, 2011.6.27.
- 陳 致: 清華簡所見古飲至禮及《邠夜》古佚詩試解, 清華大學《出土文獻》第一輯, 中西書局, 2010年.
- 程浩: 清華簡《耆夜》篇禮制問題釋惑, 社會科學論壇, 2012年03期.
- 丁進: 清華簡《耆夜》篇禮制問題述惑, 學術月刊, 2011年第6期.
- 杜 勇: 論清華簡耆夜篇的文本性質, 上海大學古史史料學研究的新視野——新出土文獻與古書成書問題學術研討會論文, 2013.10.
- 郭永秉: 清華簡“耆夜”詩試解二則, 楚簡楚文化與先秦歷史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 2011.10.
-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本文簡稱“復旦讀書會”): 《清華簡<耆夜>研讀笱記》, 及文後評論,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1.5.
- 伏俊彥、冷江山: 清華簡《耆夜》與西周時期的“飲至”典禮,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11年第1期.
- 付林鵬: 由清華簡《耆夜·樂詩》看周公的巫祝身份, 中國文物報, 2010.8.20.
- 郝貝欽: 清華簡“耆夜”整理與研究, 天津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4.
- 黃懷信: 清華簡《耆夜》句解, 文物, 2012年第1期.
- 黃詒誥: 論清華簡《耆夜》中所見的周代“樂語”, 韓國, 中國語文學, 第65輯, 2014.4.

- 季旭昇：《清華簡（一）·耆夜》研究，臺灣中研院史語所“第三屆古文字與古代史國際學術研討會”論文，2011.3.
- 姜廣輝：“耆夜”疑為“耆卒”之誤寫，光明日報，2010.7.12.
- 姜廣輝、付贊、邱夢燕：清華簡《耆夜》為偽作考，故宮博物院院刊，2013年第4期。
- 李峰：清華簡“耆夜”初讀及其相關問題，第四屆國際漢學會議論文，台北，2012.6.。
- 李家浩：清華簡《耆夜》的飲至禮，清華大學《出土文獻》第四輯，中西書局，2013.
- 李均明：夜所見辛公甲與作冊逸，光明日報，2009.8.17.
- 李均明：蟋蟀詩主旨辨——由清華簡“不喜不樂”談起，清華大學《出土文獻》第四輯，中西書局，2013.
- 李學勤：清華簡《耆夜》，光明日報，2009.8.3.
- 李學勤(2010a)：清華簡九篇綜述，文物，2010年第5期。
- 李學勤(2010b)：從清華簡談到周代黎國，清華大學《出土文獻》第一輯，中西書局，2010.
- 李學勤：論清華簡《耆夜》的《蟋蟀》詩，中國文化，2011年第1期。
- 李銳：清華簡“耆夜”再探，香港浸會大學“清華簡與《詩經》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2013.11.
- 劉成群：清華簡《樂詩》與“西伯戡黎”再探討，史林，2009年第4期。
- 劉成群(2010a)：清華簡《耆夜》《蟋蟀》詩獻疑，學術論壇，2010年第6期。
- 劉成群(2010b)：清華簡《耆夜》與尊隆文、武、周公——兼論戰國楚地之《詩》學，東嶽論叢，2010年第6期。
- 劉光勝：清華簡《耆夜》考論，中州學刊，2011第1期，又見《中華文化論壇》2011第1期。
- 馬楠：清華簡《耆夜》禮制小筭，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第5期。
- 梅顯懋、于婷婷：論兩《蟋蟀》源流關係及其作者問題，遼寧師範大學學報，2013年第4期。
- 米雁：清華簡《耆夜》、《金縢》研讀四則，簡帛網，2011.1.10.
- 裘錫圭：說“夜爵”，清華大學《出土文獻》第二輯，中西書局，2011.
- 沈建華：清華楚簡“武王八年伐邠”芻議，考古與文物，2010年第2期。
- 蘇建洲：《清華簡》考釋四則，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1.1.9.
- 孫飛燕：《蟋蟀》試讀，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第5期。
- 田旭東：清華簡《耆夜》中的禮樂實踐，考古與文物，2012年第1期。
- 王鵬程：文王、武王所戡之“黎”不同——“清華簡”武王所戡之“黎”應為“黎陽”，史林，2009年第4期。

- 王鵬程: “清華簡”《耆夜·樂詩》管窺, 中國文物報, 2010.4.30.
- 王寧: 清華簡《**郢**(耆)夜》中的“和”夜”, 簡帛研究網, 2009.10.29.
- 薛元澤: 《詩經·唐風·蟋蟀》詩義探討——兼論清華簡“武王八年耆(黎)”之疑, 簡帛研究網, 2011.3.14.
- 顏偉明, 陳民鎮: 清華簡《耆夜》集釋, 復旦大學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9.20.
- 張崇禮(2014a): 清華簡《耆夜》字詞考釋, 復旦大學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4.6.9.
- 張崇禮(2014b): 釋清華簡《耆夜》中的“夜”字, 清華簡《耆夜》字詞考釋, 復旦大學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4.11.25.
- 張崇禮(2014c): 釋楚文字“敎”和“𡗗”, 《簡帛語言研究》2014, 待刊稿
- 趙平安: 說“役”, 語言研究, 2011年第31卷第3期.
- 子居: 清華簡《耆夜》解析, 學燈20期, 2011.10.10.
- 가이즈카 외 저, 배진영 외 역,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혜안, 2011.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詩經》, 서울: 명문당, 2010.
-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본기》, 서울: 민음사, 2010.
-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세가》, 서울: 민음사, 2010.
- 왕런상 저, 주영하 역, 중국음식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0.
- 이상옥 역, 《예기》하, 서울: 명문당, 2003.
- 저우스펀 저, 김영수 역, 중국사 강의, 서울: 돌베개, 2006.
- 좌구명 저, 장세후 역, 《춘추좌전》,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김석진, <중국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竹簡>, 《목간과 문자》7호, 2011.
- 성시훈, <清華簡「尹誥」의 내용과 사상적 의미에 관한 고찰>, 《유교문화연구》20, 2012.
- 성시훈, <文獻의 원형과 인용, 그리고 재창조—清華本「傳說之命中」의 내용과 사상적 경향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56, 2014.
- 이연주, 張崇禮,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46집, 2014.11.
- 최남규,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誥」와 문자 연구>, 《중국어문학》60, 2012.

< 中文提要 >

清華簡〈耆夜〉記述了武王八年伐耆成功後，君臣在文王太室舉行飲至典禮，飲酒作歌，慶祝勝利的情形。〈耆夜〉的出現，對於更好地理解傳世典籍《尚書·西伯戡黎》、《左傳》及《儀禮》中的飲至禮和《詩經·唐風·蟋蟀》，均具有重要意義。在整理者釋文及其他專家研究成果的基礎上，本文對〈耆夜〉內容做了介紹、註釋、翻譯，以幫助相關領域的學者更好地利用這份寶貴的出土資料。

關鍵詞：清華簡，〈耆夜〉，《詩經·唐風·蟋蟀》，《尚書·西伯戡黎》，飲至，戰國竹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21.	2015. 1. 26.	2015. 2. 16.	2015. 2. 28.